

국토교통부, 한-브루나이·투르크 스마트시티 협력 교두보 - 5일 브루나이·투르크메니스탄과 양국 간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 논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9월 5일 오후 서울에서 핑에란 다토 샴하리 (Pengiran Dato Shamhary)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 장관과 데르야겔디 오라조브(Deryageldi Orazov) 투르크메니스탄 알카닥 도시건설 위원장 (부총리급)을 만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
 - 이번 만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양국 정부를 초청함에 따라 성사되었다. * WSCE, 9.3~9.5 / 고양 킨텍스
- 한-브루나이는 '19년 스마트시티 업무협약(MOU) 체결에 이어 지난해 9월 브루나이 교통정보통신부의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참여 등을 계기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교류·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.
 -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(한국), 스마트 네이션 (브루나이) 등 각국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소개하며,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 - 브루나이는 스마트 네이션 구축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며, 박상우 장관은 이에 응하며 한국 기업과 전문가가 현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브루나이의 협조를 요청하였다.
- 브루나이 면담 이후에는 투르크메니스탄과 면담이 진행되었다.
 - 양국은 지난 6월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정상 순방 시 개최된 '한-투르크 비즈니스 포럼'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 등 정부 관계자에 한국 스마트시티 정책을 소개한 것을 계기로, 한-투르크 간 스마트시티 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.
 -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알카닥 신도시 스마트시티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적 경험과 기술 전수를 요청하며, 한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하였다.
 - 박 장관은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히는 한편, 양국 간 더욱 긴밀한 스마트시티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번 브루나이, 투르크메니스탄과의 면담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2024. 9. 5.

국토교통부 대변인